

國之有史郡之有誌族之有譜其揆一也史者國之存亡興廢君之聖庸賢暗臣之忠奸佞直一一記者也誌者郡之守令善否民之忠孝節義士之美惡生產一一誌者也譜者先祖昭穆次序子孫嗣續出入世之統緒連脉一一序者也此三者我國民之一大綱領也故上自世家下至士族莫不修其系牒戶藏而家譜者將欲明其同源之水流爲千派一根之木分爲萬枝尊祖敦宗之誼由是而篤焉惟我先祖文憲公諱冲生先濂洛遠宗洙泗始倡性理之學設九齋教授後學其文章道德炳明日月其優偉勳業顯乎邦國雖愚夫愚婦咸稱東方夫子厥後賢相名臣綿綿相繩入我朝諱璘號望海堂文科歷翰林承文院校理掌樂院正燕山戊午士禍知時事之不可爲乃退遜于延城雌鳳山下揭其楣曰望海堂保節昏朝文章節義曜映百世世之相後四五百禩後裔繁衍實不愧於大姓然至于近世寥寥不振者抑運有否泰理有旺衰否衰之悠久者此所以來頭泰旺之兆也將欲待其泰旺之運者各成德業各修學文各修技藝以待氣數是何以異於瑠琢玉而久藏韞櫃售其善價者歟顧今世衰道微倫敗綱頹昭穆派系因以不明尊祖敬宗之風因此解弛花樹之誼未免豆箕之歎矣此豈非世族之一大憾恨歟戊午修譜距今三十載派譜重刊之議發於五六年前受單完了關於世擾事寢不行矣今復增削舊單纂集家藏方就剞劂之際族侄洪根與春根時在有司之任向余而語曰新譜序宜請于德望高手而事當促急故歸之于余余以狐陋淺質何敢當其重大文字然同祖收族之誼不敢辭故撮其大略叙之如右

西紀一九四六年丙戌仲春上澣 文憲公二十七代孫中樞院議官泳燮謹序

夫人之有譜如木之有根如水之有源木無根則枯水無源則涸人無譜則派系紊亂昭穆失序此蘇譜之所以作也噫吾門之修譜久矣若是奄過日月雖以至近之族將至於視若路人之弊故門中父老深慨于此大發公議欲修大譜而習俗日下世道多端不無落落難合之歎故不得已以修派譜爲教廣求搜索收其散處索其遺失一無遺漏之弊則其於親親敦睦之誼豈不有益哉先世道德勳業議官族祖序文中詳之不復更贊只舉修譜之顛末以附于譜編之下嗟嗟後生恒念人無譜則如木無根水無源之意速修大譜以統全國之宗族是所望焉

西紀一九四六年丙戌仲春上澣後孫 炳學 謹跋

發刊辭

海州崔氏校理公派는 海東孔子 文憲公 諱 冲의 第十四代孫인 文科承文院校理 諱 璘이 李氏朝鮮 燕山君 때의 戊午土禍(一四九八年)로 凶해 黃海道 延白郡 湖南面 雌鳳里 紫鳳山下(俗稱자달)로 落鄕定住해 家門을 形成 하여 連綿五〇〇年에 걸쳐 그後孫들이 雌鳳里를 中心으로 其他 遠近部落에서 子子一村하여 團欒하게 生을 營爲 하던 자랑스러운 氏族입니다.

그러나 一九五〇年 六月二十五日에 뜻하지 않게 勃發한 民族的悲劇인 怨恨의 六·二五動亂은 많은 宗親들이 父母·妻子·兄弟·姊妹들을 情든 故鄕에 남겨둔 채 男負女戴하여 定處없이 離散을 해야만 하는 눈물겨운 試鍊을 갖어다 주었으니 어찌 痛嘆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十年이면 江山도 변한다고 했습니다만, 山河가 변해도 몇번씩 변했을 四半世紀라는 긴 歲月을 두고 우리들 避難宗親一同은 故鄕山川 一家親族들과의 完全한 斷絶狀態에서 가지가지의 受難과 忍辱 挫折과 再起를 되풀이 하면서도 故鄕에 殘留하고 있는 家族이나 親族들의 安危를 걱정하는 마음 暫時도 잊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分斷의 壁은 굳어만 가니 참으로 悲痛한 마음 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狀況 속에서도 우리 宗親들은 百折不屈하는 強靱한 意志로 四顧無親한 南韓에서 各其 삶의 터전을 開拓하였으며 이제 스스로의 周邊도 돌아볼 수 있는 精神的인 餘裕도 지니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祖上들에 對한 敬慕하는 마음과 함께 南韓各地에 離散되어 있는 宗親끼리의 보다 緊密한 紐帶의 強化가 切實하게 必要함을 意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一九七二年부터는 組織的인 宗親會活動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는 不完全狀態로나마 譜書를 發刊하여야 하겠다는 한결 같은 念願이 싹트기에 이른 것입니다.

더우기 우리들의 先代가 一代를 二十年으로 算하여 每三十年마다 譜書를 發刊하였던 傳統을 지키는 意味에서도 今乙卯年이 一九四六年 丙戌譜를 펴낸지 꼭 二十年이 되기 때문에 몇몇 뜻있는 宗親들은 더욱 큰 使命感을 意識하게 되었으며 萬難을 무릅쓰고 기어이 譜書를 發刊하겠다는 衷情만을 가지고 이 莫重大事에 全力을 傾注했던 것입니다.

勿論 처음부터 여러 宗親들의 積極的인 支援을 期待하고 出發했던 것도 事實입니다만 宗中이 渾然一體가 되 期待했던 以上으로 財政的인 側面에서 또는 心的인 側面에서 熱과 誠을 다해 協調를 해주었으며 깊은 友愛

로 團合된 우리 門中의 자랑스러운 一面을 보여 주었습니다. 結局에 達한 마음들의 結晶이 宗中의 宿願을 達成케 해 준 것이라고 自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렇듯 慶事스러운 平面的인 事實과는 달리 한편으로는 肅然하게, 그리고 무거운 罪責感에 사로잡히게 됨은 譜書의 編纂責任을 맡은 不肖만 의 느낌이 아니고 在南宗親이 한결같은 것이 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不可抗力이라고는 하더라도 故郷에 殘留하고 있는 한 핏줄들을 함께 收單하지 못하고 半身不隨나 다름없는 譜書를 엮어 내게 됨이 어찌 千秋의 恨이 아니겠습니까? 허기야 이 恨맺힌 事緣을 歷史도 證言해 줄 것이요, 또 北韓의 殘留族親들이나 우리들의 後孫들이 寬大히 容認해 주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悚懼스러운 마음을 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速히 民族의 宿願인 南北이 統一되고 흐터진 宗親이 한데 묶이는 完全無缺한 譜書를 되실 수 있게 되길 宗親一同과 더불어 祈願하면서 發刊辭에 代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乙卯譜를 上梓함에 際하여 積極協調해 주신 다음 宗親들에게 門中을 代表해서 感謝를 드립니다.

西紀一九七五年乙卯十二月 日

文憲公第三十一代孫 吉

竣 謹跋

海州崔氏世譜

總編

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崔 溫

子 冲

子 惟善

子 思齊

子 淪

子 允儀

子 敏

海州大寧郡人歷羅至麗世以文行稱著公殖財甚饒俗稱長者豪制鄉井牧使金興祖抑定鄉吏尋免之

字浩然號惺齋一云月圃 宋太宗雍熙三年高麗 成宗丙戌生景德二

字樂夫號松灘天聖八年 顯宗庚午擢乙科第 一官推忠贊化康 靜綏濟功臣開府 儀同三司三重大 匡守太師中書令 判吏部事監修國 史上柱國熙寧八

靖宗乙丑生至和元年 文宗甲午擢丙科第 一官守司空中書 侍郎判吏部事上 柱國元佑六年 宣宗辛未八月丁卯 卒立朝三十八年 諡良平公○麗史 云公以文行名世

元豐七年 宣宗甲子擢丙科官 榮祿大夫禮部尚 書翰林學士

崇寧元年 肅宗壬午年文科官 門下侍郎平章事 判吏部事 毅宗壬午卒壽六十 一諡英烈公配享 毅宗廟庭○麗史云 公論事明白慷慨 典銓選任用賢能 再掌貢舉時稱得人 博學能文章賞 奉詔選古今詳定 禮五十卷行于世

穆宗乙巳擢甲科第 一官推忠贊道佐 理協謀同德允理 弘文懿儒保定綏 靜康濟功臣開府 儀同三司三重大 匡太師中書令判 吏部事監修國史 上柱國熙寧元年

文宗戊申九月十五日甲申卒壽八十三 歷事五朝立朝六十四年諡文憲 公配享 靖宗廟庭○麗史云

文宗廟庭○麗史云 公繼世儒宗傳家 相業匡輔兩朝人 皆重之配享文憲 書院

文宗廟庭○麗史云 公繼世儒宗傳家 相業匡輔兩朝人 皆重之配享文憲 書院

紹興十年 仁宗庚申同進士及第官監察御史○ 夫人安東權氏父 翰林學士適

文宗戊申九月十五日甲申卒壽八十三 歷事五朝立朝六十四年諡文憲 公配享 靖宗廟庭○麗史云

文宗廟庭○麗史云 公繼世儒宗傳家 相業匡輔兩朝人 皆重之配享文憲 書院

文宗廟庭○麗史云 公繼世儒宗傳家 相業匡輔兩朝人 皆重之配享文憲 書院

文宗廟庭○麗史云 公繼世儒宗傳家 相業匡輔兩朝人 皆重之配享文憲 書院

紹興十年 仁宗庚申同進士及第官監察御史○ 夫人安東權氏父 翰林學士適

子 敏

總編